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퀀트/자산배분 Analyst 최재원, RA 유지운



키움증권

미 증시, 지수 레벨 부담 속 미-이란 협상 불안, CPI 대기심리 등으로 하락 전환

10일(월) 미국 증시는 최근 신고가 경신(다우, S&P500)에 따른 단기 레벨 부담 속 미-이란 협상 교착에 따른 WTI 80달러 재돌파, 미 10년물 금리 4.7%대 상회, 7월 CPI 대기심리 등이 차익실현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소폭 약세 마감(다우 -0.1%, S&P500 -0.1%, 나스닥 -0.3%).

지난 7월 말 이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 복귀 시도 소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양국간 배상 문제를 놓고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협상 조건으로 전쟁 비용 전액을 배상금을 요구했으며, 미국도 과거 50년 동안 테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맞불을 놓는 등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기 때문. 이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지연 → 유가 상승 → 미 시장금리 상승”의 루트를 또 다시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정.

여기서 미국 증시가 약 보합 수준의 조정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미-이란 갈등은 이전처럼 증시 추세를 훼손시키는 트리거 보다는 차익실현의 빌미만 제공하는 수준의 노이즈성 재료로 그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 양국 모두 전쟁 장기화의 부담의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공통 분모이기에, 추후 협상 타결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유지해나갈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7월 고용 부진에 따른 연준의 9월 인상 가능성 하락 등으로 성장주 전반에 걸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반도체 대형주들의 숨고르기 국면 지속까지 더해지면서 바이오, 소부장 등 코스닥 중심의 강세를 연출하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0.7%, 코스닥 +7.0%).

금일에는 미-이란 협상 교착에 따른 유가 및 금리 상승, 미국 증시 숨고르기 여파 등이 최근 연속적인 랠리를 전개한 중소형주들의 단기 차익실현을 유발하면서 사이즈(시가총액) 및 업종 간 순환매 장세를 전개해 나갈 전망.

한편, 7월 폭락장의 저점이었던 7월 30일 이후 반등 과정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성과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8월 10일 기준, 코스닥은 7월 30일 바닥 대비 약 32.5% 상승한 반면, 코스피는 약 12.6% 상승에 그친 실정. 이로 인해 “코스피보다 코스닥으로 수급 주도권 이동”과 같은 색깔 변화에 대한 논의가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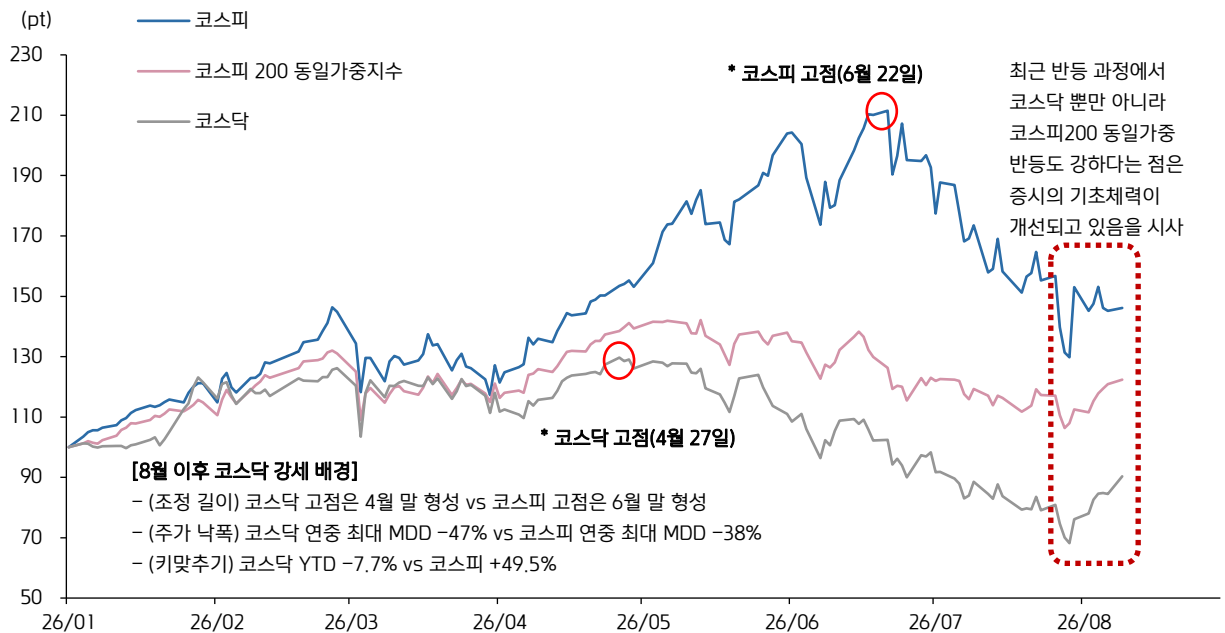
“가는 주식이 간다”는 모멘텀 플레이 측면에서 단기 랠리를 펼치고 있는 코스닥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피의 비중을 대폭 줄이는 전략은 후순위에 두고 갈 필요. 최근 코스닥의 상대적으로 강세는 “낙폭 과대의 되돌림 + 코스피와 키맞추기” 성격이 짙었으며, 대형주의 상방 모멘텀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

일례로, 코스닥의 연중 고점은 4월 27일로, 코스피의 연중 고점(6월 22일)에 비해 약 2개월 먼저 형성되면서 시차상으로 조정의 길이가 코스피보다 더 길었던 상황. 더욱이 7월 폭락장 당시 코스닥의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은 -47%대에 달했으며(vs 코스피 -39%), 최근 반등에도 불구하고 YTD 수익률은 -7.7%로 코스피(+49.5%)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는 점이 코스피와 수익률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키밋추기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판단.

다만, 이를 코스닥만의 독자적인 재평가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8월 들어 코스피(-4.5%)나 코스피 대형주(-6.5%)가 부진한 것은 맞지만, 코스닥(+18.7%) 이외에도, 코스피200 동일가중(+8.7%), 코스피 중형주(+15.3%), 코스피 소형주(+14.0%) 등 여타 지수들의 반등 탄력도 강했기 때문. 이는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포함 대형주 중심의 쏠림현상이 심화됐던 6~7월 수급 꼬임 장세에 비해 Market Breadth(업종 수익률 운기 확산)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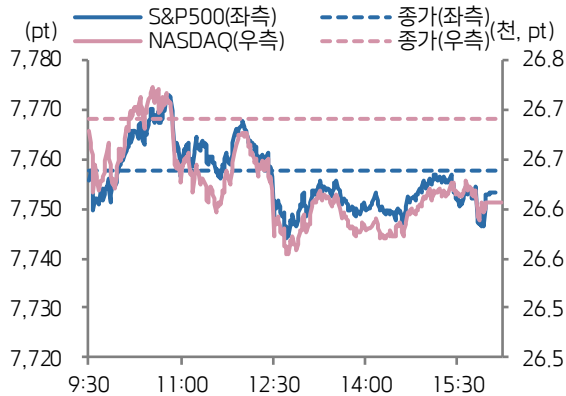
이번 주 남은 4거래일동안 코스닥, 중소형주의 반등이 이어질 수 있겠으나, 미국 테크주 실적, 국내 반도체주의 주주환원 기대감 등 코스피의 잠재적인 상방 재료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따라서, 국내 증시 전반에 걸친 회복 모멘텀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현 시점에서는 코스닥으로 전면 갈아타는 전략보다 “코스피 + 코스닥”, “반도체 시총 비중 수준 편입(약 50%대) + 전력기기, MLCC, 방산, 바이오 등 비반도체 분산”과 같은 바벨 전략을 우선순위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

연초 이후 코스피 vs 코스피200 동일가중 vs 코스닥: 코스닥 뿐만 아니라 코스피 내 비반도체 등으로 수익률 운기가 확산 중. 향후 코스닥으로 전면 갈아타기 보다는 “코스피 + 코스닥”, “반도체 + 비반도체”의 바벨 전략의 유용성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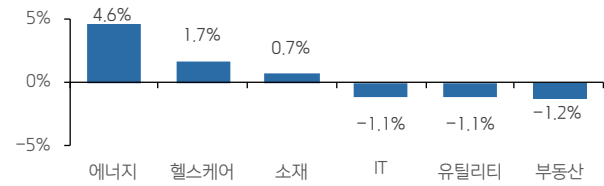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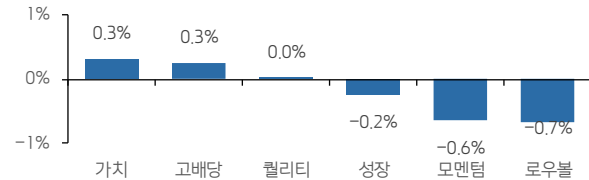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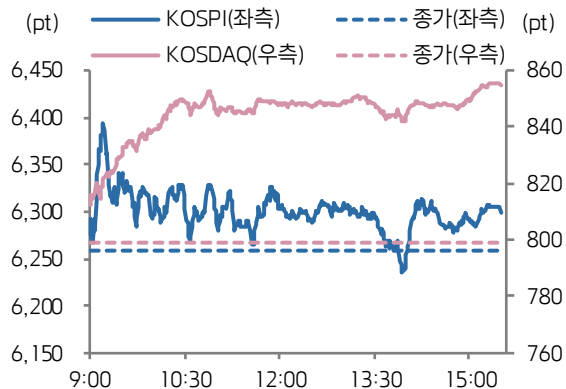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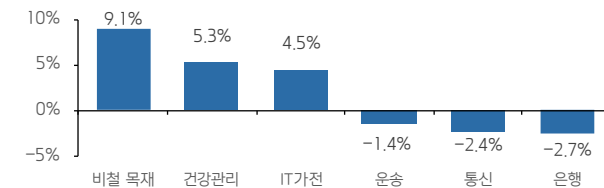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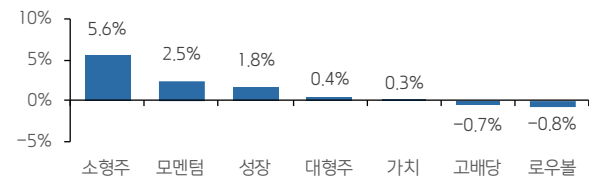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08.26	-1.53%	+13.7%	GM	87.96	+0.43%	+8.66%
마이크로소프트	506.06	+1.21%	+5.11%	일라이릴리	1,231.94	+3.9%	+15.02%
알파벳	357.52	+0.91%	+14.37%	월마트	112.66	+0.72%	+1.52%
메타	594.92	+0.48%	-9.71%	JP모건	359.79	+0.63%	+13.25%
아마존	278.09	+1.32%	+20.48%	엑손모빌	159.79	+4.41%	+34.57%
테슬라	330.88	+0.7%	-26.43%	세브론	194.91	+4.48%	+30.32%
엔비디아	217.55	-2.86%	+16.79%	제너럴일렉트릭	112.66	+0.7%	+1.5%
브로드컴	422.40	-1.25%	+22.5%	캐터필러	837.58	-0.55%	+47.1%
AMD	469.56	-2.86%	+119.26%	보잉	232.79	-0.7%	+7.22%
마이크론	861.00	-1.89%	+201.84%	넥스트에라	84.70	+0.1%	+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299.66	+0.65%	+49.49%	USD/KRW	1,418.00	+0.56%	-1.49%
코스피200	977.84	+0.32%	+61.37%	달러 지수	99.81	+0.27%	+1.51%
코스닥	854.47	+6.97%	-7.67%	EUR/USD	1.15	-0.14%	-1.73%
코스닥150	1,485.17	+8.54%	-4.02%	USD/CNH	6.75	+0.05%	-3.29%
S&P500	7,753.11	-0.06%	+13.26%	USD/JPY	159.29	+0.97%	+1.65%
NASDAQ	26,605.36	-0.32%	+14.47%	채권시장			
다우	53,975.98	-0.11%	+12.3%	가격	DTD(bp)	YTD(bp)	
VIX	15.46	+3.76%	+3.41%	국고채 3년	3.775	+2.8bp	+82.4bp
러셀2000	3,017.40	-0.56%	+21.58%	국고채 10년	4.235	+2bp	+85bp
필라. 반도체	11,993.86	-2.94%	+69.33%	미국 국채 2년	4.241	+4.6bp	+76.8bp
다우 운송	21,366.08	-0.65%	+23.1%	미국 국채 10년	4.707	+6.1bp	+54bp
상해종합	3,966.59	+0.67%	-0.06%	미국 국채 30년	5.251	+5bp	+40.7bp
항생 H	8,621.84	+1.06%	-3.27%	독일 국채 10년	3.179	+4.7bp	+32.4bp
인도 SENSEX	78,542.44	+0.06%	-7.84%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6,535.62	+0.18%	+12.85%	WTI	82.13	+5.05%	+44.06%
MSCI 전세계 지수	1,153.30	+0.07%	+13.67%	브렌트유	87.72	+4.99%	+44.16%
MSCI DM 지수	5,007.84	+0.67%	+13.03%	금	4,419.70	+0.45%	-1.73%
MSCI EM 지수	1,657.82	-0.04%	+18.05%	은	65.27	+2.79%	-7.55%
MSCI 한국 ETF	163.12	-1.79%	+67.78%	구리	661.60	+0.38%	+16.44%
디지털화폐				BDI	3,089.00	+1.05%	+64.57%
비트코인	64,109.62	-1.53%	-26.86%	옥수수	461.75	-0.05%	+0.27%
이더리움	1,878.09	-2.17%	-36.93%	밀	659.25	+0.15%	+16.73%
				대두	1,179.50	+0.28%	+10.8%
				커피	313.90	-0.63%	-0.2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1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